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근거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세브란스병원 간호국(간호담당부원장 오경환)에서 참여했다.

간호사 확보 및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 국회 공청회

윤종필·김승희 국회의원 주최 - 간호협회 주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윤종필 국회의원과 김승희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개회사를 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 간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별도의 간호 관련 법을 제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면서 "오늘 공청회는 간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해보겠다는 시도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김승희 국회의원은 "간호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간호현장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근거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